(1)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활약

- 1965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 선 일 보 西紀1965年12月28日 (火曜日) 【4】

體育韓國 그 名門을 이을

65年의 高校 베스트플레이어

代表選手로 有望株

既成들에 挑戰하는

野球의 李源國·籠球의 段明學등은 1級

柔道의 鄭德煥·陸上 姜錫九도 遜色없어

先輩들은 이렇게 期待한다

◇柔道 ▲鄭德煥(19·蛟南高3年)

◇野球 ▲李源國(18·中央高2年)

◇排球 ▲金榮相(18·蛟城高3年)

◇拳闘 ▲徐祥榮(19·慶山高3년)

◇蹴球 ▲李會(18·東北高2年)

◇籠球 ▲段明學(18·松湖工3年)

◇陸上 ▲金得貴(18·金山南星女高3年)

◇体操 ▲朴貴淑(18·韓明女高3年)

◇水泳 ▲李明姬(13·釜山 由央女中 1年)

◇九道 ▲李春植(20·大邱西光高3年)



◇柔道 ▲鄭德煥(19·蛟南高3年)

고교 유도계의 제1인자

제2회 중고등대학개인전에서 우승, 금년도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하여 선배 선수들을 놀라게 했다.

중학교에서는 야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중3때 유도로 전향, 5개월 만에 초단을 딴 후로 별로 져본 일이 없는 기록이다.

특기는 왼쪽업어치기와 누르기. 경량급 최대 유망주로 지목된다.

키 171Cm, 체중 70Kg <추천=유도회 이사 송영수>

鄭德煥<柔道>

1965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유도

정덕환 (19. 성남고3년)

고교 유도계의 제1인자.

제2회 중고등대학개인전에서 우승, 금년도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하여 선배 선수들을 놀라게 했다.

중학교에서는 야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중3때 유도로 전향, 5개월 만에 초단을 딴 후로 별로 져본 일이 없는 기록이다.

특기는 왼쪽업어치기와 누르기. 경량급 최대 유망주로 지목된다.

키 171Cm, 체중 70Kg <추천=유도회 이사 송영수>

(1)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활약

1965 ~ 1972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활약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도를 시작하여 성남고 3학년 때 전국대회를 제패









경향신문 1965年11月24日

柔道綠合選手權

이번대회에서 두드러진신인으로는 대표급선수 李相燦등을 제압하고 올라와 준결승전에서 金鍾達에 아슬아슬한 접전끝에진 鄭德煥(城南高) 선수를들고있다。

경향신문 서기1970년12월8일(화요일)【서울판】【6

鄭德煥·羅正得 우승

이날 대학부의시합은 延大선수간의 대전으로 압축됐는데 鄭德煥은 금년도각종대학부 유도의패자인 金永煥에 엎어치기로 절반을얻은후 다시 죽지걸어 누르기로 제압、선수권을 획득했다。한편 고등부 결승전은 같은훈련단소속의 羅正得(大田高)과 潘庚燮(東北高)이 접전을 벌인끝에羅正得이 몇차례 엎어치기공격을벌여판정승을얻었다。

◇각부별전적

▲대학부=①鄭德煥(연대)②金永煥(연대)③金宗煥(경희대)李命相(연대)▲고등부=①羅正得(대전고)②潘庚燮(동북고)③姜弼煥(해동고)朴鉉九(동북고)▲중등부=①具會暎(영신중)②李忠相(성서중)③조봉형(대성중)金元吉(동북중)

1970年7月7日 火曜日 (陰曆 6月4日 무자) 東亞日報 【8】

柔道會도 20명選抜

대한유도회는 六일 七一년 서독에서 열리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및 七二년「뮌헨」올림픽대회에 대비、현역대표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상비군二十명을 구성했다。

五체급에 각각 四명씩 선발된 이들상비군은 유도회의 자체장기훈련계획에 따라 연중무휴의 훈련을 받게된다。

◇상비군명단

▲라이트급=尹恭和(영남대)朴수경(영남대)鄭在永(보성고)朴石秉(유도학교)▲라이트미들급=金大根(동아대)尹秀均(육군)李容德(유도학교)林鍾七(한양대)▲미들급=崔圭本(육본)尹錫源(동아대)金永煥(육군)鄭德煥(전매청)▲라이트헤비급=鄭利秀(철도청)李庚善(한양대)朴淳晋(유도학교)金昌浩(전매청)▲헤비급=鄭三鉉(육군)金正幸(유도학교)羅正得(대전고)白善一(한양대)









어려서 남달리 힘도 좋았고, 운동신경도 있어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운동 중에서도 큰형이 경동고등학교에서 유도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영향 때문인지, 유도를 유난히 좋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성남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이미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선발될 만큼 유도 계에서는 유망한 선수가 되었다. 그 후 연세대와 군복무(육군)를 거치면서 전국 대학선수권과 국제 군인 유도선수권 대회 최종선발 우승 등 명실 공히 한국 유도의 일인자로서 굳게 자리를 잡고, 부푼 꿈에 젖어 있었으나, 그 꿈은 일장춘몽이 되어, 한때 최연소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발탁되어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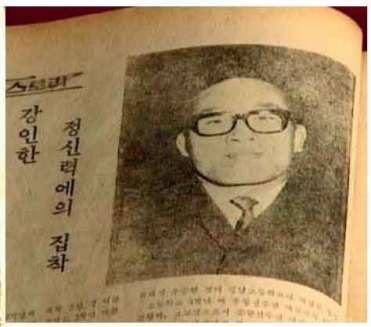
(2) 1972년, 세계 최 정상급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서 전신마비 척수장애 1급 장애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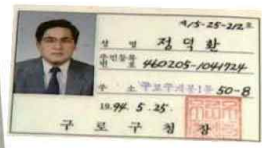
1972년 8월 1일! 운명의 전주곡은 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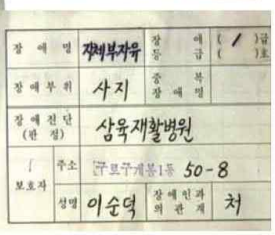
그날은 마음 속으로 하계훈련을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활약중인 정덕환선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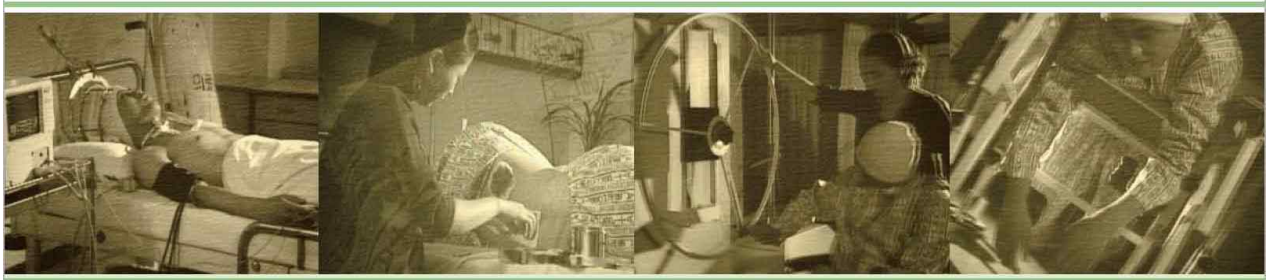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내에 위치한 명륜도장. 그 날의 연습상대는 선의의 경쟁자인 같은학교 1년 선배로, 둘은 대학 유도의 양대 간판으로 막역한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다. 연습시합은 시작되었고 경기는 더욱 팽팽한 긴장의 연속 중에 정덕환 선수의 한판 엎어치기가 들어갔고 상대 선수의 몸이 떠 올랐으나 매트에 꽂힌건 정덕환 선수였다. 경추 4, 5번 골절상, 골절된 경추에 의한 횡경막 손상...
평범한 사람보다도 왕성한 육체적 활동을 했던 운동선수가 1급 장애인이 되어 그 것도 2시간 이상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3) 1979년, 중증장애인으로서의 자립 시작

모교 유도코치를 거절 당한 후 또 한번 좌절

오랜 병상생활 끝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1979년 구로동에서 '이화식품' 가게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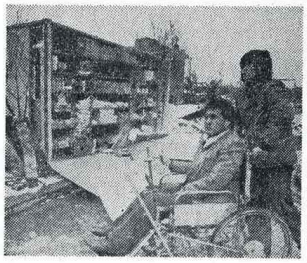


경 향 신 문 1981년2월20일(금요일)

호소도 아랑곳없이 無許구멍가게 撤去
自活의 意志 또한번 시들어 흐느낌속에

自活의 의지가 흙발에 짓밟히는 아 소리없이 흐느껴울었다。 행상등을하며 생계를 꾸려 눈발속에서 시들어버렸다。 鄭씨는 봉구의몸이 부끄 지난72년11월 유도국가 럽다며 학창시절 (연세대) 대표선수 모서훈련에 참가 했다가 경추에 금이 간는 상처를 입고 전신마비가된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가된 형의 형거제고장을받고 마 지막으로 유도회를 찾아와 재활의 몸부림을 쳐오 눈발속에서 시들어버렸다。 鄭씨는 봉구의몸이 부끄 지난72년11월 유도국가 럽다며 학창시절 (연세대) 대표선수 모서훈련에 참가 했다가 경추에 금이 간는 상처를 입고 전신마비가된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가된 형의 형거제고장을받고 마 지막으로 유도회를 찾아와 재활의 몸부림을 쳐오

柔道 前國家代表선수 鄭德煥씨



鄭씨는『부서진 구멍가게가 마치 불구가된 내몸같다』고 씁쓸히 말했다。

鄭德煥씨(36·서울 구로 도움을 호소했으나 결국은 구신미아파트3동 106 20일 3평남짓한 그의 구 자는鄭씨의 딱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계 속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없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鄭씨의 가게는 우리스스로가 당지 내에 가게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때문에 생긴 공판장 장은것인데 어떤 몰지각한 가게를 지키려고 했던 鄭씨의 구로구청의 주택과 담당 것을 호소했을 것도。 주민들의 협조로 아파트단 지입구에 가건물을 세우고 구 청장에 호소문을 내고 아파트주민들중 2백60가구의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려 2백40가 명가게를 봤다。 이때에는 구의 주민들이 도와줄

경 향 신 문 1981년9월19일(토요일) 【8】

挫折딛고 일어선 意志의 人間勝利



鄭德煥씨

柔道 前대표 鄭德煥씨, 合訓중 重傷입어 9년만에回復









삶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있을 때, 케나다의 선교사이신 구애련씨 등의 선교 활동과 보장구 지원 등으로 삶에 의욕을 되찾아 모교인 연세대학교를 찾아가 유도코치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후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어야만 하였다. 연세대학교 교정을 내려오면서 '곳곳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고, 어떡하든지 자립하고 노력해서 이 땅의 많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 것이 계기가 되어 오랜 병상생활 끝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1979년 구로동에서 '이화식품' 가게를 시작으로 자립기반을 다져가게 되었다.

(4) 1983년,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전신마비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최초 '생산적 복지' 시스템 적용

1983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첫 발을 내딛고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장애인들도 일하며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덤빈 것이다.











京鄕新聞 1985년4월12일 금요일



집달리에 쫓겨 현관입구에서 밤을새운 에덴복지원생들을 원장 鄭德煥씨(오른쪽)가 지켜보고있다. <孫光鈺기자>

「에덴복지원」 장애자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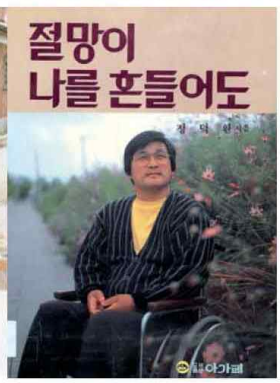
거리로 쫓겨난 「自活의 꿈」

貰든건물 새主人이 明渡소송으로

"이달말까지라도"호소묵살

電子부품조립으로 꾸려와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그 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든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 1983년 이화식품으로 모은 500만원을 가지고 구로구 독산동에 2~3평 되는 작은방을 얻어 5명의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전자부품 조립 작업을 하는 에덴복지원을 시작하였고, 눈물겨운 뜻에 감동한 많은 장애인들은 복지원을 일으키기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에는 건물주의 부도로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개봉동 작업시설이 세 차례 강제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등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5) 1987년부터 현재까지 34년간 년 2백여명씩 연인원 약 7천여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

(6) 1987년, 지역주민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갈등해결

1987년 에덴하우스로 바꾸고

봉급이 넉넉치는 않으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온 세상을 휩쓸고 간 수마에 에덴하우스는 다시한번 무너져야했다.









西紀 1992年 (檀紀 4325年) 2月 13日 木曜日

前유도스타의 휠체어사랑 활짝

72년代表 鄭덕환씨 장애인돕기 9년

훈련중 부상당해 전신 마비

숱한 좌절딛고 복지원 세워

60여명과 천막생활…새집마련 비지땀

◇복지원 건물신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鄭德煥씨.





동 아 일 보 1993年4月20日 火曜日 [22]

“장애인 보호보다 自立길 터줘야”

장애인의 날-前유도대표 鄭덕환씨

장애인일터 일군 장애인

국민포장 鄭德煥 에덴하우스원장

모두 80명으로 봉제장난감 생산



京鄕新聞 1991年4月21日 (日曜日)

하반신이 불편한 몸으로 장애인 3천여명을 보살펴온「에덴하우스」원장 鄭德煥씨가 20일 국민포장을 받고 부인 李順德씨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高宇鎭기자>









주위의 도움으로 구로동에 2층 건물을 임대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감을 찾아 다시 동분서주 했고, 장애인들의 능률은 조금씩 높아져 한때 80~100여 명의 원생이 불어나기도 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넉넉한 봉투를 받아갈 수는 없었지만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87년 온 세상을 휩쓸고 간 수마에 에덴하우스는 다시한번 무너져야했다. 수해로 인한 피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지만 시련속에서 에덴하우스 가족들은 다시 한 번 단단해졌다. 제 집을 지니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개봉 1동에 23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는데 예외없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들에게 장애인은 결코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닌 열심히 살아가려는 평범한 이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동네 크고 작은 일에 따스한 관심을 보여주며 아낌없이 도운 결과 조금씩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졌다.

(7) 199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선구적 역할 수행

1998년 파주로 시설 이전

장애인 직업재활의 글로벌화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으로 확장 이전








사 회

일반인 뛰어넘는 숙련도
“희망을 생산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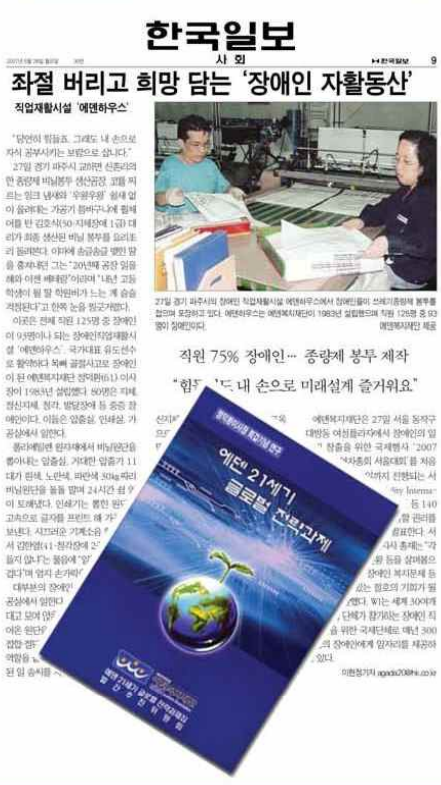
“장애인, 일 있으면 사회에 짐 안돼”


에덴복지재단 창립25주년 기념행사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이곳은 일하고자 하는 더 많은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시설이자 체계화된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터전이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 직업재활이야말로 진정한 재활의 꽃이다. 장애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다. 경증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06년도에 공동선 포럼(중증장애인의 생산적 복지에 앞서가는 한국의 선진화 방안)과 에덴 21세기 글로벌 전략과제집을 내었고, 2007년에는 5월에는 WI(Workability International)-Asia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내의 장애인 문제에 안주하지 않고, 아 · 태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소득보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8) 에덴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생산적 복지시스템 성공적 정착에 기여

-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위한 가정 마련 (결혼식 장면 사진)





【11】 第1432號 〔第3種郵便物(가)級認可〕 1993年8月11日(陰曆 六月二十四日 甲子) 水曜日 ① (日刊)

새생명 복된소식

장애인 부축…취업돕는 '작은예수'

「신한국인」 선정 영예 정덕환 에덴하우스원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시설이나 보호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길을 열어주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일이 제가 할 일이지요』

지난 6월 신한국인에 선정된 에덴하우스 원장 정덕환씨(47)는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절망을 넘어선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온 인물이다。

본인도 유도경기중 부상

유도국가대표였던 정씨는 불의의 사고로 목을 다쳐 장애인이 된후 장애인근로복지시설 에덴하우스를 설립, 장애인들에 재활의지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현재 83명의 장애인이 위생팩, 쌕는 비닐봉지, 쇼핑백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훈련을 통해 재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정덕환원장(왼쪽)。

스도의 섭리에 감사할 뿐입니다。이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왔던 운동대신에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삽니다』

판매난·자금부족 2중고

최근 에덴하우스는 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비닐봉지 판매가 부진해 기본시설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정씨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부조달품목으로 지정, 구매해주었으면 한다。

에덴하우스는 그동안 사용해온 서울 개봉1동의 천막 숙례이트 건물이 너무 낡고 좁아 그 자리에 복지선교관을 지난 4월 착공했으나 건축비부족과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현재는 임시로 개봉2동 오류복개천 위에 천막

7년간 3천여명 재활교육·40쌍 결혼도와

현재83명 수용…비닐봉지등 만들며 홀로서기 구슬땀

훈련시켜 취업할수 있도록 교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고 나 히 88년 골두리찬양선교단을 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보호

國民日報

社是：사랑·봉사·인간

發行·編輯人 趙鍾祐
主筆 洪性勉
編輯局長 申琪均
서울特別市 中區 貞洞 1-16 (우편번호 100)

代表案內 705-4114
FAX 705-4115
政治部 705-4321
經濟部 705-4331
社會部 705-4341
宗教部 705-4411
廣告局 705-4815
購讀申請 705-4854
配達案內 705-4855

(8) 에덴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생산적 복지시스템 성공적 정착에 기여

-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 (여가활동 프로그램 : 악기연주, 게이트볼 등)











(8) 에덴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생산적 복지시스템 성공적 정착에 기여

-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 언론보도자료

한국일보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30판 사 회 한국일보 13

체험르포 직접 가봤더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16일 경기 파주시 교하면 신촌리의 한 공장. 입춤기가 쉬지 않고 비닐 봉투 원단을 토해냈다. 누가 봐도 뇌성마비가 분명한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오가며 기계음을 듣볶다. 알아들을 듯 말 듯한 말과 어색해 보이는 몸짓이었지만 30kg의 비닐 원단을 다음 작업장으로 옮기는 손놀은 기계와 적적 맞았다.



에덴하우스의 장애인 직원들이 16일 종합체 쓰레기 봉투 마무리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체 장신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이다.

일반인 뛰어넘는 숙련도 "희망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사고로 장애아이 된 정덕환(60) 이사장이 1985년 장애인들을 모아 설립한 작업 재활 시설 '에덴하우스'다. 직원 1000명 중 90명은 지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 중증 장애인이다. 대규모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춘 에덴하우스에서는 하루 40만~50만장의 2~100 / 짜리 쓰레기 봉투들을 제작, 수도권 20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43억원. 올해 목표는 60억원이다.

정신지체·청각장애 등 90명

비닐원단 자르고… 봉투 묶고

쓰레기봉투 제조에 구슬땀

"월급 적어도 어엿한 자부심"

업종 작업장 열 인해 작업장에선 고속으로 기계를 돌파하는 비닐 원단에 문구가 인쇄돼 나왔다. 입크와 앉은 직원한지, 정확한 위치에 인쇄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비장애인 엔지니어들과 보조 업무를 맡은 장애인들이 바쁘 움직였다. 비장애인인 인쇄기 엔지니어 권상택(40)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들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며 동료 직원들을 치켜세웠다.

양현정(39·지체장애 2급)씨는 성실성 덕분에 지난해엔 에덴하우스 식당의 비장애인 영양사와 결혼했다. "장애인이고 싶은 사람 없고, 장애를 가졌다해도 일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능력은 있지만 일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안타깝습니다."

인쇄된 비닐 원단을 포장하는 작업장. 50개정의 장애인들이 글씨가 인쇄된 비닐 원단을 잘라 크기별로 10장씩 묶고 있었다. 다른 작업장과 달리 서로 마주보고 있을 하는 탓인지 여기저기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정겹다.

포장 작업 책임자인 김호식(49·지체장애 1급) 반장은 "장애인들도 이렇게 일자리만 주면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가족까지 부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그는 "지체인 직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봉투를 세는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10배는 빠르고 정확하다"며 직원 자랑을 쏟아냈다.

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는 평균 87만원. 적지면 적은 돈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느끼는,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다. 개인이 있어도 국가에서 주는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받겠지만 이들은 지원금 대신 일을 택했다. 홍선규 사무국장은 "월급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직원도 있다"며 "이곳은 장애와 장애가 모여 희망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일 있으면 사회에 짐 안돼"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내일 백법기념관서 포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덴하우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제단체 WFW(Workability International)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

정민승기자 mg@hk.co.kr

중앙일보

12 2006년 11월 9일 목요일 사 회 제13009호 43판 중앙일보

파주 장애인 재활시설 에덴하우스

"연봉 2800만원 … 성공적 일자리"

쓰레기봉투 매출만 60억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지하 1층에 걸려 있는 글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절절한 심정이 배어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125명 중 95명은 뇌성마비·다운증후군·자폐증 등 정신지체 중증 장애인으로 이곳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직원들의 이런 마음 가짐은 에덴하우스를 일반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에덴하우스는 음해 6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KS마크와 ISO 9000 인증을 따는 등 품질 면에서도 일반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월평균 87만원. 연봉 2700만~28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설립자인 정덕환(60) 이사장도 1급 지체장애인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뽑혔던 그는 1972년 훈련을 하다 목뼈가 부러져 목 아래쪽이 마비됐다. 그러나 시련을 딛고 83년 중증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립, 오늘날의 규모로 키워냈다.

정 이사장의 에덴하우스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떠올랐다. 2004년엔 장애인 재활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일본의 '이토카 가쓰오' 상을 받았다.

그는 2016년까지 장애인재활시설·주택·노인복지센터까지 갖춘 3만 평 규모의 '에덴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600억원이나 된다. 기업의 기부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50억원은 에덴하우스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의 웅대한 꿈을 돕기 위한 후원모임도 결성됐다. 서영훈 전 적십자사총재가 대표를 맡고 강영훈·이현재 전 총리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9일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에덴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제1회 후원의 밤' 행사도 열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에덴하우스 정덕환 이사장❻이 근로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양영석 인턴기자

朝鮮日報

조선일보 제26563호 사회 2006년 5월 19일 금요일 다 A9

국가대표 유도선수→1급 장애→사업 불운→장애인 기업으로 大成

휠체어에 앉아 세상 움직이다



▲ 젊은 정덕환(맞출 가운데)은 유도선수였다.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전신마비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에덴복지재단 제공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 정덕환(鄭德煥·60)씨.그는 1972년 8월 1일을 잊지 못한다. 그는 국가대표 유도선수였다. 세월이 지난 지금, 정씨는 에덴복지재단이라는 장애인 선교·재활기관 이사장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비닐봉투 제조회사 에덴하우스는 직원 123명 중 92명이 중증장애인이다. 그들이 작년에 이룬 매출은 54억 원. 그 사연, 깊고 길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다 군 제대 후 연세대에 복학한 그는 그날 성균관대 앞 대한유도회 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대련 상대가 그를 매트에 업어친 뒤 정신을 잃었다. 목뼈가 부러졌다. "사흘 못 간다"던 의사 진단과 달리 그는 석 달을 살았다. 그리고 엉덩이 뼈를 잘라 목에 이식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그에게 쥐어진 것은 장애인수첩.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목 아래는 두 팔을 제외하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그의 '모든 것'이었던 유도와 그렇게 작별했다.

갓 결혼한 아내(이순덕·57)는 샛바느질에 나섰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유도가 은·동메달을 땄다. 실의에 젖어 있던 그는 TV를 보면서 "코치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후 모교에 찾아가 코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는 백양로를 따라 학교를 나오면서 "장애인이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장애인을 위해 일하자"고 결심했다.

이후 서울 구로동에 구멍가게 '이화식품'을 냈다. 1983년 500만 원이 모이자 그는 독산동에 장애인 5명과 함께 전자부품 조립 작업장인 '에덴복지원'을 만들었다. 정씨는 휠체어를 타고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일감을 따오고 장애인을 훈련시켰다.

쉽지 않았다. 2년 뒤 건물 주인이 부도났다. 가재도구가 거리로 내던져졌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자 구청에서 공간을 마련해 줬다. 1987년엔 홍수가 닥쳤다. 그는 "하수구 위에 사무실을 지었는데, 갑자기 물이 솟구쳤다"고 회상한다. 누군가 급히 달려왔기에 망정이지, 그는 또 죽을 뻔했다. 재료, 상품…. 몽땅 물 속으로 사라졌다. 허망했지만, 독하게 다시 시작했다.

1987년 정부 지원을 받아 개봉동에 땅 230평을 샀다. 이름도 에덴하우스로 바꿨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애들 교육에 나쁘다" "집값 떨어진다"…. 어렵사리 공장 짓고 틈만 나면 직원들과 거리 청소를 하며 이웃과 친해지려애썼고, 성공했다. "경제적 곤란도 문제였지만, 주민 반대는 견디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朝鮮日報

조선일보 제26563호 사회 2006년 5월 19일 금요일 다 A9



▲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왼쪽)이 비닐봉투 제조회사 에덴하우스 직원들과 작업을 의논 중이다. 정 이사장도 전신마비 장애인이고 이 회사 직원 123명 가운데 92명도 중증장애인들이다. /박종인기자

"장애인은 왜 늘 수혜만 받아야 하는가,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 '휠체어를 탄 유도 코치'라는 꿈이 좌절되면서 깨달은 진리였다. 그리하여 1989년 에덴하우스는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제조로 업종을 바꿨다.

정신지체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비장애인 한 사람이 할 공정을 다섯 공정으로 나눠 난이도에 따라 장애인을 배치한다. "생산성은 5분의 1이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생산하지 않는가."

공장을 지었다. 다섯 명으로 출발한 직원이 2006년엔 123명이 됐다. 92명이 뇌성마비,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이다. 월급을 주지 못해 속을 썩였던 매출은 작년에 54억 원으로 늘었다.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86만3000원.

공장 지하 1층 작업실엔 10개 라인마다 장애인이 붙어서 작업에 열중이다. 벽엔 이렇게 적혀 있다. '오직 품질로써 경쟁력 우위 확보'. 정씨가 휠체어를 타고 작업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웃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개의치 않는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이 맑다. 정씨는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생계 꾸리는 데도, 결혼하려 해도 경제적인 기초가 필요하다. 그는 이를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정씨는 2002년 36년 만에 연세대를 명예졸업했다. 2004년엔 장애인 재활복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일본의 이토카 아쓰오 상도 받았다. 한국인으론 처음이다.

그리고 오늘(19일)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상임대표 서영훈·徐英勳 전 적십자사 총재)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중증장애인의 생산적 복지'. 장애인 고용의 노하우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임이다. "내가 회갑인데, 요즘에 회갑연 여는 사람 어디 있나. 사람들이 잔치하자 해서 싫다고 했더니 회갑 기념 토론회를 하자고 하더라."

"사흘 못 간다"던 청년이 목숨을 건져,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내고 맞이하는 회갑인데, 조금은 특별해도 좋겠다. 에덴하우스 홈페이지는 www.edenwelfare.org.

박종인기자 seno@chosun.com

중앙일보

장애인도 당당한 납세자 되는 게 진정한 복지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모토

착한 소비로 일감 줬으면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은 유도 국가대표 시절이던 1972년 훈련 중 척추을 다쳐 전신이 마비됐다. 그의 의지와 달리 세상은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단다.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납세자'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생산적 복지가 자리 잡은 사회지요."

정덕환(67) 에덴복지재단 이사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손가락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전신장애 속에서 평생에 걸쳐 원군 매출액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아니던가. 고생에 이력이 난 그이기에 '악'에 받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반대였다. 에덴복지재단은 사회적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장애인 사업장 '에덴하우스'와 친환경 주방세제를 만드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행원' 두 곳에서 장애인 130명과 비장애인 60여 명이 함께하는 훨기찬 일터다.

"스스로 땀 흘려 먹고 사는 우리 식구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되지만, 모두 세금을 내며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삶이 아닌 떳떳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당당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지원은 꼭 필요해요."

정 이사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64년 최연소 유도 국가대표로 뽑힌, 촉망받는 선수였다. 72년, 선배와 훈련을 하던 도중 척추가 부러졌다. 목 아래론 아무 감각이 없었다. 병원에선 "3일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다. 1년 2개월 뒤 가까스로퇴원할 수 있었지만 전신장애를 앓는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모교인 연세대를 찾아가 유도 코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코치직을 거절 당했을 때 엄청나게 좌절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요. 이 일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 이사장은 얼마 뒤 주민 동의를 얻어 79년 살고 있던 구로구 이화아파트 입구에 9.9㎡(3평)짜리 구멍가게를 열었다.

정 이사장이 손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주민들이 거스름돈을 직접 가져가야했지만, 가게는 그럭저럭 유지가 됐다. 이를 기반으로 83년엔 독산동에 3평짜리 방을 얻어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전자부품 가공을 하는 '에덴복지원'을 열었다.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휠체어에 의지해 일대를 누비던 에기는 이 동네 전설처럼 남았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장애인 시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주민들의민원과 손가락질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정 이사장은 꿋꿋이 버텼다. 차량에 연탄재나 오물을 끼얹고 가는 사람까지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낄 때도 그는 참고 또 참았다고 했다.

"건물주인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은 적도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땅만 구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 제 돈 2000만원에 1억5000만원 대출받아 간신히 땅을 마련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을 못짓는 땅이었어요. 나무 판잣집 비슷하게 꾸며놓고 일을 했습니다."

'일(1)이 없으면(0) 삶(3)도 없다(0)' 정 이사장이 요즘 믿고 있는 구호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10월 30일)에 그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이사장은 이를 '착한소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다. 정 이사장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들이 일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다른 업체와 온전히 경쟁해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KT&G에선 인쇄물 제작 일감을 주고 인쇄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로 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모은 돈 1억원으로 특수버스도 기증해주셨고요. 저도 열심히 뛰어야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파주=글 · 사진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9)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역임, 장애인 직업재활에 헌신

- 1030 직업재활의 날 선포식 (선포식 사진 및 보도자료)

- 2009년 제1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진대회 -

(1030 직업재활의 날 선포 - 매년 10월 30일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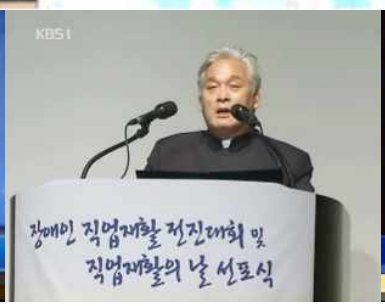








SBS 아침종합뉴스



KBS 뉴스네트워크



OBS(경인방송) 뉴스

(9)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역임, 장애인 직업재활에 헌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덕환 회장 이·취임식

"장애인복지의 최우선이자 최종목표는 직업재활이며, 일이 곧 복지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 전진대회 및 직업재활의 날 선포식'에서 정덕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신만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다듬어가는 것이 선진화된 복지사회며 이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우선구매 확대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강도우미, 디맨디케어 등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확대에도 노력해왔다"고 자평한 뒤,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녀년부터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이 직업재활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직업재활의 날 선포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대회에는 전국 협회지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을 비롯 서울대 이상묵 교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흥 원장 등 정·관계인사, 장애인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정 회장의 이·취임식을 비롯 1030 비전선포, 유공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朝鮮日報
A16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10판 제28288호 조선일보

〈일(1)이 없으면(0) 삶(3)이 없다(0)〉

"1030 착한 소비운동이 장애인을 살립니다"

장애인 일터의 산실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


정덕환 이사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꿈★의 사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형원'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세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지혜 리포터

"형원(馨園)"은 지난 9월 파주 신촌리 에덴복지재단 안에 들어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다. 친환경세제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직원 30명 중 장애인이 20명이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과연 장애인재활시설이 소규모 운영에서 탈피해 100명 이상, 그중 60%를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들로 고용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국내 첫 모델 사례이다. 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제안하고 '실현 중'인 사람이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65)이다. 회사 이름 '형원'은 그의 호를 딴 이름이다.

정 이사장은 1983년 에덴복지원을 설립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해 왔고, 그 공로로 국민포장(1991),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2009) 등을 받았다. 그런 그가 '형원' 이야말로 자신의 분신이자, 28년간 장애인 직업재활에 매진한 결정체라고 말한다.

◇"세상을 원망하면 지옥한다"

정 이사장은 1972년, 유도 연습 중 자신보다 20kg 무거운 상대를 들다 넘어져 경추 4, 5번 골절을 입었다. 유도 국가대표로 승승장구하던 26살 청년이 목 아래가 마비되는 1급 지체부자유자가 됐다.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으로 재활 치료에 매달렸다. 유도 선수가 못 되면 코치로라도 일할 수 있게 모교에서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고 믿었다. 휠체어를 타고 복목 펄어지는 판을 통 넘은 소매 안에 볼들어 넣고 모교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몸은 이래도 주변에서 나를 격려해 주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학교가 너무 미웠지요."

그에게는 갓 시집와 아들을 낳은 아내와 노모가 있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마냥 미워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마음에 분노를 갖고 살면 자기가 못쓰게 돼요.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결국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고, 자멸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청계천에서 공구장사를 하고 서울 구로동에서 부여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그렇게 해서 모은 1500만원으로 1985년 구로구 옥산동 3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5명의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전자부품 조립 작업을 시작했다. 에덴복지재단의 시작, 에덴복지원이었다. 임감이 붙어 공장이 잘 되면 건물주가 부도를 내 전 직원이 쫓겨났고, 봉제인형을 만들던 공장이 화재로 타기도 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다. 1987년 개봉동에 공장을 세우고 100명의 장애인 직원들과 쓰레기 수거용 비닐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8년 파주에 옮겨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일'은 곧 '삶'

'형원'이 들어 있는 에덴복지재단 1층 사무실에는 정 이사장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정 이사장이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사)' 회장을 맡아 장애인 직업재활 및 생산품 판매에 관련한 문제점을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전동휠체어로 하루 종일 바삐 다니고 주중에는 퇴근도 없이 일하지만, 장애인 고용 문제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는 "평생 시설에 살았음지도 모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가족과 사회에 결코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고 가정을 꾸리면서 당당한 납세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그가 운영해 온 근로시설에서 사람을 싹 떠와 겉혼한 근로자들이 500여 쌍이 넘는다. 최저 임금 106만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형원'의 중증 장애인들도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꼽는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영호(31)씨는 "이렇게 모으면 1억도 모을 것 같다. 그거 가지고 국제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다운증후군 환자인 이민경(33)씨는 "200원짜리 커피값도 아까워서 안 사 먹는다. 돈 모아서 시집 갈 것"이라며 수줍게 웃는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됐지만, 현재 형원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장애인 100명 고용, 그중 60명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던 계획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대기업에서 선점한 시장이라 판로개척이 쉽지가 않다.

정 이사장은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2007년 제정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것만 잘 지켜진다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1030 착한 소비 운동'을 권하고 다닌다. "장애인에게 '일(1)이 없으면(0), 삶(3)이 없다(0)'는 뜻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든 제품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지혜 리포터 sergilove009@naver.com

(9)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역임, 장애인 직업재활에 헌신



(9)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역임, 장애인 직업재활에 헌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활동(2)





2009년 제1회 대회에서는 10월 30일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로 선포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고, 제2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의 해' 를 선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1%이상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제3회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기반 확충의 해' 를 통해 매출증대와 근로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금번 제4회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해로 삼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9)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역임, 장애인 직업재활에 헌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활동(3)



제1회 대회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선포로 직업재활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고 제2회 대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해' 로 선포하여 2011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1%이상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기반 확충의 해' 를 맞이하여 유형개편 된 시설들의 현황 파악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였고, 제4회 대회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해' 로 선포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발 맞추어 법률 및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올해 제5회 대회는 「제5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치창조 및 판로 확대의 해' 로 선포

OBS NEWS

사회 ▾ 제5회 장애인 직업재활의날 기념식 개최 2013.10.30



제5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10월 30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치창조와 판로확대의 해' 선포식과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성과 보고, 중점 추진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내일까지 이틀동안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가 마련됩니다.

이윤택 | lyt06@obs.co.kr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사회 ▾ 제5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박람회 열려 2013.10.31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서울 SETEC에서 지난 30일 열렸다.

'10월 30일의 1030을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로 형상화해 매년 열리고 있는 기념식에서는 내년인 2014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치창조 및 판로 확대의 해' 로 선포하는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정덕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정하균 의원, 김정복 의원,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보냈으며, "장애인이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차별 받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흔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산품 판매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과 '1030 성과 보고와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장에서는 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만든 제과제빵, 생활용품 등 생산품 전시와 판매가 이어졌다.



박람회에 참가한 쌀레이크 협의체 신동혁 행복의일터보호작업장 원장은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케이크다. 현재는 생일을 맞은 국군장병에게 보내지고 있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 단순 가공제품이 아닌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한 가구도 선보였다.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이명수 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보통 일가공제품을 만무리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부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용식 씨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목공에 기술을 가르쳤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어린이용 가구와 교구인데 이 제품들을 통해 장애인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외에도 장애예술인들이 참가하는 공연과 장애인 직업재활 심포지엄 등으로 꾸며졌다.

/박고운 아나운서 | lovelygw@hanmail.net

WBC복지TV

사회 ▾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2013.11.04



예쁜 장신구가 가득 달린 나무들, 반짝반짝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감기에 충분한데요.

제5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현장입니다.

올해는 20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치창조 및 판로확대의 해를 선포하고자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덕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장애계 단체장들이 참여했으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산품 판매를 위해 수고해 온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함께 열린 생산품 박람회장에서는 제과제빵 등 생산제품 전시와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신동혁 원장 / 행복의 일터 보호작업장 INT)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구매해 주시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단순 가공제품에서 나아가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해 만든 가구도 선보여, 장애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수 / 강서구휴면희망일터 INT)
도용식 디자이너님께서 저희 친구들에게 1년여 동안 가르쳐준 목공예기술이 오늘 전시회 때 이렇게 전시가 됐습니다.

도용식 실장 / 강서구휴면희망일터 INT)
드릴링 테스크의 경우 각이 4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0월 30일,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를 뜻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의 날, 이날의 행사가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생산품에 대한 편견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 출범식 [2015. 4. 23.]



KBS NEWS

뉴스 7 | 사회 |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운동본부 출범 | 2015.04.2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운동을 목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평생 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가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 예덴복지재단에서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직업복지와 확한 소비, 사회 통합, 생명 존중이라는 4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브닝뉴스 | 사회 | 중증장애인 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 | 2015. 04. 23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경기 파주시 예덴복지재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 생산품의 소비를 확대하는 사회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덕환 회장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북한과 아시아, 지구촌까지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오현석)

UBC복지TV

마루의 행복한 휴먼릴리스 | 장애인 직업 재활의 전도사 예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



CBS노컷뉴스



OBS NEWS

경인세상 | 사회 |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 | 2015.04.23



[앵커멘트]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요,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입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시 예덴복지 재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인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합뉴스TV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운동본부 출범 | 2015. 04. 24



장애인의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평생 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가 경기도 파주시 예덴복지재단에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는 'Happy Dream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이슈 | '색안경' 낀 사회… 장애인 취업 현실과 해법은 | 2015. 04. 15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 [2015. 10.21.]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 (2015. 10. 21)



환영사 정덕환 회장



개회사 심재철 국회의원



축사 김상규 조달청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김정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 정책세미나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이 취업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계량화함으로써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권리와 지위를 누리도록 하자는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됐습니다. 행복공장모델화 사업은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복지재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증장애인의 복지고용 모형을 개발해 달라"는 당부를 한뒤 에덴복지재단의 주도로 진행돼왔습니다. OBS 뉴스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에코페어(Eco-Fare) 캠페인 발대식 [2019. 12. 20]

* Eco-Fare Campaign: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환경문제와 일자리 해결을 위한 캠페인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에코페어(Eco-Fare) 캠페인 발대식 [2019. 12. 20]

에코페어캠페인
Eco-Fare Campaign
생산과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착한선언

에코페어선언문

우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자연과 공존하고 인류가 상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과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오염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으로 자연과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과 평화의 터전을 지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연결되고 연대하는
에코페어캠페인으로
오늘의 착한 선언을 확산시켜 나아가는데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12. 28

에코페어선언과 함께 하는 사람들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
HAPPY DREAM JOB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에코페어(Eco-Fare) 캠페인 발대식 [2019. 12. 20]

에코페어캠페인 발대식 참여기관 현황 (2019.12.20현재)

소속	이름	직위	비고
유엔글로벌컴팩트	박석범	사무총장	국제기구
유엔한국협회	이호진	회장대행	
(재)한국세계자연기금	손성환	이사장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장주호	세계총재	
(사)세계생활체육연맹한국위원회	유길호	위원장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정태영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공공기관
(사)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여성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원로자문위원회	고수곤	사무총장	경제단체
주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이광연	대표	
(사)한강생명포럼	장준표	회장	환경단체
환경일보	이미화	사장	
(사)한국실내환경협회	정상기	회장	
(사)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	문화단체
비채나문화포럼	윤재환	회장	
(사)한국창작오페라단	이지명	이사장	
글로벌웰니스건강협회	정은채	회장	
(사)한국문화체육연합(SAKA)	진용환	이사장	생활체육
세계생활체육골프연맹(GAFISA)	유영환	회장	
칭찬대학교	김기현	총장	사회단체
예능방송인선교회	이민욱	사무총장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복지단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회장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회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이병돈	회장	
(사)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주최기관
CTS TV	감경철	회장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	정덕환	회장	주관기관
(사)국제지도자연합	조명수	이사장	협업기관

(10) 2019년,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설립

- 에코페어(Eco-Fare) 캠페인 발대식 [2019. 12. 20]



2020

HAPPY NEW YEAR

생산과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에코페어캠페인과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19성탄마켓과
에코페어캠페인에 바쁜 연말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과 회원들이
환경과 이웃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선언 에코페어캠페인에
힘든 발걸음을 해주신 단체장님과 내빈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에코페어 착한선언,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정신을 모두어
여러분들과 함께 착한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경유년 새해는 더 맑고 더 행복한 세상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6일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 회장 **정덕환 배상**
제8대 UN사무차장 겸 UN ESCAP 사무총장 **김학수 배상**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
HAPPY DREAM JOB

■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

- 2011. 9. 28.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형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구현
(장애인 100명고용중에서 중증장애인 6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사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을 위하여 정부(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고용,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을 최저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이다. 에덴은 2009년 6월에 다수고용사업장에 선정되어 "형원"으로 하였다.

"형원"은 친환경세제「그린키스」와 산업용세제「미라클폼」등의 아이템을 가지고 2011년 9월 28일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민수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있다.

■ 학계 · 정계 · 사회복지단체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대외활동을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에 기여

강연활동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13년 7월 4일


[나사렛대학교 직업재활학과] 2008년 8월 29일


[전국장애아보육사설협의회] 2008년 1월 25일


[우석대학교] 2012년 11월 8일


[안산공대 사회교육원] 2006년 12월 7일


[카톨릭부모회] 2011년 2월 15일


[나사렛대학교] 2008년 8월 21일

방송활동







KBS 1TV 뉴스라인(2012.10.30)


SBS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2008.12.24)



복지TV 희망을 말한다(2006.10.11)

수상


국민포장(1991년)



신한국인상(1993년)


국민훈장 석류장(2000년)



2010 MBC 사회봉사대상 본상(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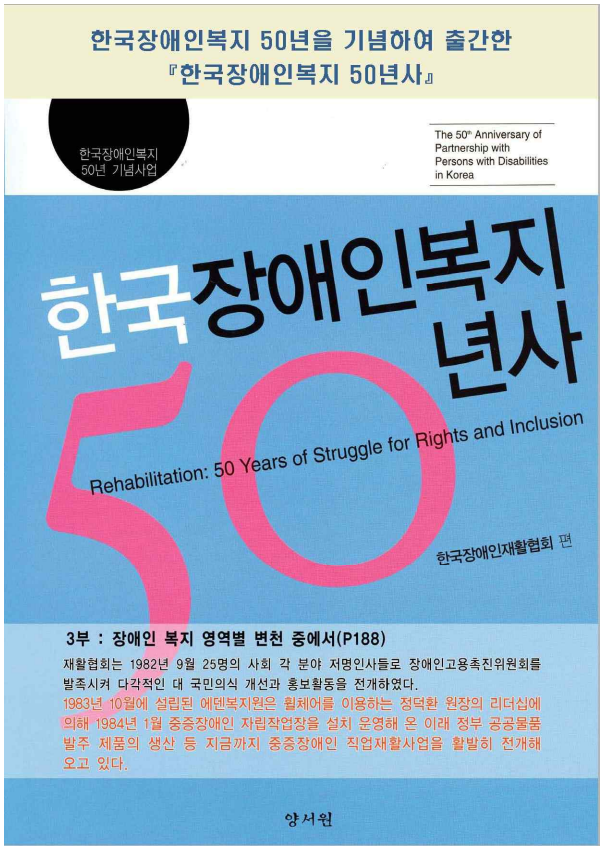

이토카가쯔오상(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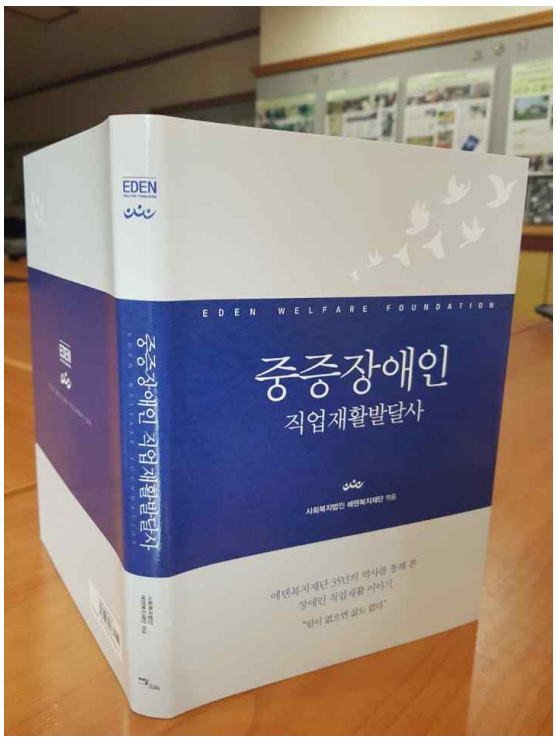


도산봉사상(2008년)


우봉봉사상(2013년)

■ 학계 · 정계 · 사회복지단체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대외활동을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에 기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발달사』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의뢰, 2015)

■ 에덴 일자리 모형 전 세계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협력 유치

국제교류활동



○ 2001년 아태장애인 10년 캠페인(2001. 12. 10~15)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주제 :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촉진
- 내용 : 37개국 1,400명이 넘는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이 참석. 국제노동기구(ILO)의 드보라페리(장애인 직업재활분과 전문가)는 정덕환 이사장과 면담을 하여 한국의 정신지체인 작업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 OSAKA FORUM 2002(2002. 10. 21~23)
- 장소 : 일본 오사카
- 주제 : 아태장애인 10년 종결과 새로운 10년을 위한 오사카포럼
- 내용 : 정덕환 이사장의 발표(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 마련 등)



○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 시설에 대한 국제회의(2003. 9. 1~3)
- 장소 : 대만
- 주제 :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 시설에 대한 국제회의
- 내용 : 다른 국가의 우수한 보호작업 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



○ 대만 사회복지시설(희락보육원)과 자매결연(2004. 7. 2)



○ UN ESCAP(유엔에스캅) 회의 3차 참석
- 1차 : 태국 방콕(2003. 06. 1~4)
- 2차 : 베이징(2003. 11. 3~8)
- 3차 : 태국 방콕 (2005. 7. 4~9)

- 주제 : 장애인 인권촉진 및 보장 국제조약
- 내용 : 다른 국가의 우수한 보호작업 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



○ WI회의(2006. 2. 6~9)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 내용 : 에덴의 글로벌 전략 과제 추진에 대한 사례를 발표

WI-Korea 설립 배경

- WI(Workability International)는 미국의 Good-Will, 영국의 Remploy, 스웨덴의 Samhall, 일본의 제3섹터 모형 등 장애인 고요창출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세계 37개국이 가입된 국제기구
- 그간 에덴이 추구해온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사례가 ILO, UNESCAP, 오사카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됨으로서, 에덴모형을 아시아를 비롯한 저개발국가등에 전파를 추구하고자 WI에서 에덴의 정덕환 이사장을 WI-Korea의 대표로 추대
- 2006년 2월 4일「에덴21세기 글로벌 전략 과제집 발간」과 더불어 2006년 2월 6일 부터 2월 9일 까지 대만 타이페이 WI회의에서 에덴의 글로벌 전략 과제 추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2007년 WI 총회를 에덴복지재단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

■ 에덴 일자리 모형 전 세계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협력 유치

WI(Workability International)-Asia 연차총회 서울대회 개최























2007년 5월 28일 부터 30일 까지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과 소득보장」 이란 주제로 개최된 WI-Asia 연차총회 서울대회는 WI-Asia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국내 · 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국가적 위상을 높이며 아시아 지역단체 간의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
에덴복지재단 방문행사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므로 각국의 참여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을 만큼 행사가 원활히 잘 진행되었고, 본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직업재활 시설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

■ 에덴 일자리 모형 전 세계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협력 유치

- 국제활동 및 WI(Workability international)-Asia 연차총회 서울대회 주관 자료











한국일보

사 회

좌절 버리고 희망 담는 '장애인 자활동산'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27일 경기 파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에서 장애인들이 프레기종탄제 봉투를 접으며 포장하고 있다. 에덴복지재단이 1983년 설립했으며 직원 125명 중 93명이 장애인이다.

직원 75% 장애인… 종량제 봉투 제작

"힘들어도 내 손으로 미래설계 즐거워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내 손으로 자식 공부시키는 보람으로 삽니다."

27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 산업단지에 한 공장에 비닐봉투 생산라인 3개 씨르는 엔진 냉시에 '우웅우웅' 쉴새 없이 돌아대는 가공기 틈바구니에 힘세 어릴 한 김오석(50·지체장애 1급) 대리가 희종 생산된 비닐 봉투를 요리조리 점검한다. 이따금 송곳승급 뚫린 봉을 흥하다간 그는 "20년째 공장 일을 해와 이젠 베테랑"이라며 "내년 고등학생이 될 딸 학원비가 느는 게 걱정"이라고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이곳은 전체 직원 125명 중 장애인이 93명이나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국가대표로 유도선수로 활약하다 목에 금메시고도 장애인이 된 에덴복지재단 정덕환(61) 이사장이 1983년 설립했다. 80명은 지체·정신지체, 청각, 발달장애 등 중증 장애인이다. 이들은 업종상, 인쇄실, 가공실에서 일한다.

플라이휠에 원자재에서 비닐봉투를 뽑아내는 압출실, 커터한 압출기 11대가 한시 노년에 30kg씩의 비닐봉투를 뽑을 땀에 24시간 쉼 없이 토해낸다. 인쇄기는 종이 위든에 고속으로 글자를 프린트 해 거품심로 보낸다. 시끄러운 기계소음 한가운데서 김영철(41·청각장애 2급)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일할 수 있어 좋겁다"며 양이 손가락을 치어 올렸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하 1층 가공실에서 일한다. 오순도순 얼굴을 맞대고 모여 앉은 이들은 인쇄기에서 넘어온 원단을 가공기가 접정한 크기로 잡힙·접는부터 10장씩 끊어 포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빠른 손놀림으로 숙련된 딸 손씨를 자랑하던 김현석(26·정신지체 3급)씨는 낯선 사람에게 보호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씩 저축한다"며 "열심히 일해 내년엔 꼭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꿈이는 평균 97만원.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

에덴하우스는 95년 서울시 스페기종량제 비닐봉투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생산능력을 인정 받아 정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2~100 t 짜리 종량제 비닐봉투를 하루 평균 50만~60만장씩 제작, 수도권 200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 지난해 매출액 63억원, 올해 목표는 67억이다. 정 이사장은 "장애인도 가장으로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필복주구권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에덴복지재단은 27일 서울 동작구 대한동 이설플라자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2007 WI-Asia 연차총회 서울대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대회에선 WI(Workability International) 프랜크 콜레니히 의장 등 14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한다. 서영훈(85)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각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등을 제고할 수 있는 필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는 세계 300여개국 500개 단체가 참가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제단체로 매년 500만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일기자 agada209@hk.co.kr

SBS

SBS뉴스퍼레이드 2007년 5월 29일 17:54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직업재활 세미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더블유아이 아시아 (WI-Asia) 연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과 소득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측 참석자들이 각국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총회를 주최하고 있는 에덴복지재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를 국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욱 idwook@sbs.co.kr

KBS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WI총회 개막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주창하며 설립된 WI(더블유 아이) 아시아 서울대회가 오늘 서울시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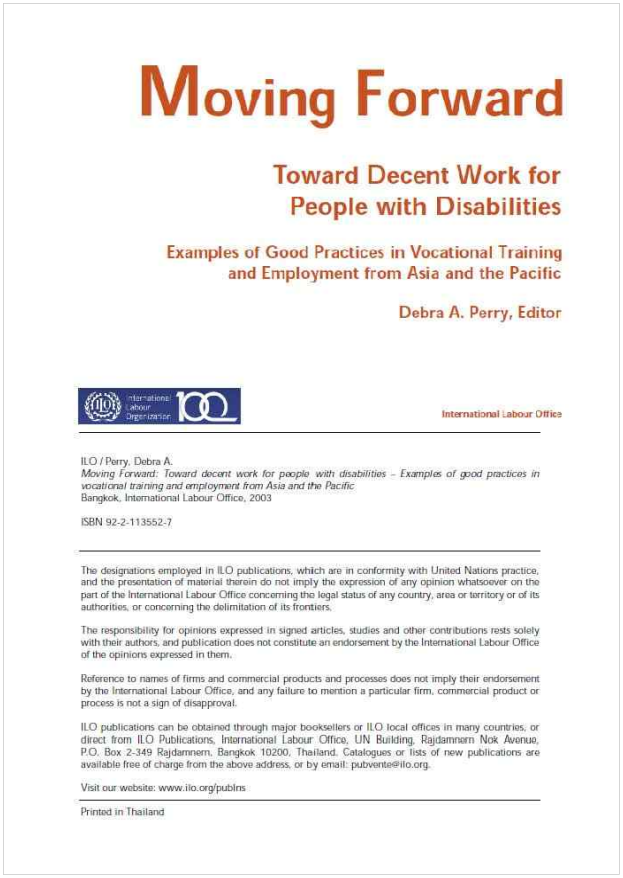
오늘 개회식에는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과 국내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례와 전략 등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WI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와 일할 권리를 찾아주자는 취지로 지난 1987년 설립돼 현재 37개 나라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3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윤섭 기자

■ 에덴 일자리 모형 전 세계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협력 유치

- 2003년, ILO (International Labor Union, UN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근로 모범사례(에덴하우스)'로 등재



Moving Forward

Toward Decent 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mples of Good Practices i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rom Asia and the Pacific

Debra A. Perry, Editor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 Perry, Debra A.
Moving Forward: Toward decent 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Examples of good practices i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rom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3

ISBN 92-2-113552-7

The designations employed in ILO publications, which are in conformity with United Nations practice, and the presentation of material therein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area or territory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The responsibility for opinions expressed in signed articles, studies and other contributions rests solely with their authors, and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an endorsement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f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m.

Reference to names of firms and commercial products and processes does not imply their endorsement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any failure to mention a particular firm, commercial product or process is not a sign of disapproval.

ILO publications can be obtained through major booksellers or ILO local offices in many countries, or direct from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UN Building, Rajdamnern Nok Avenue, P.O. Box 2-349 Rajdamnern, Bangkok 10200, Thailand. Catalogues or lists of new publication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rom the above address, or by email: pubvente@ilo.org.

Visit our website: www.ilo.org/publns

Printed in Thailand



Cleaning Up and Creating Work – How Trash Bags Raise the Self-Esteem and Incomes of People with Multiple and Severe Disab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llenge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1980s, people with disabilities resulting from cerebral palsy, autism, seizure disorders or intellectual impairments had few work options. They could not even dream of entering a work rehabilitation programme that promised productive activity, good wages and security. Such workplaces did not exist. Korea's typical approach to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 sheltered workshop that kept people "protected" or engaged in leisure activities. Employers who did offer jobs regarded disabled workers as charity cases in need of constant supervision rather than as capable and independent individuals.

Then, in 1983, a former judo player paralyzed from the neck down had a different vision – a workplace for people with multiple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However, he quickly learned that creativity and innovation were essential if others were to see the employment potentia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eeting the Challenge

With five other people, also with disabilities, Jung Duk-Whan (see box, The Man Behind the Idea) created what he described as a "community workplace". It was called Eden Welfare Centre and was the country's first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re that prepared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or jobs that paid real wages for real work. While the existing welfare system provided protection, the Eden Welfare Centre focused on empowerment through employment. The centre produced electronic parts but also provided vocational counselling and on-the-job training. Then, when the Government started discussing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Eden's president discarded the electronics business and positioned the Eden Welfare Centre to become a major producer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rash bags.

Today, the workshop, now called Eden House, produces 1,800 tons of environmentally safe trash bags a year, which amounts to 10 per cent of the entire Korean market. It employs an integrated workforce of 96 employees, 86 of whom are people with multiple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employees have a high sense of self-esteem

Replication

Among Eden House's 86 employees, most are classified as having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y require a set of work tasks suited to their abilities while trainers must provide them with the appropriate training skills. An innovative work centre or production workshop starts with a good idea followed by a sound market analysis that identifies "niches" or areas with considerable room for entrepreneurship or pioneering development. Eden House began with and maintains a clear vision and specific goals. Its professional staff and sound management practices have made that vision a reality.

Within the Korean setting, Eden House founders seized on the potential market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trash bags and took advantag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products made by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Eden House's market position was helpful, such a position is not critical if a high-quality product is backed by solid market analysis and an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In select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form the basis of work and production centres, programme operators need to consider workers' needs and capabilities along with the product itself. Given that plastic bag production requires a range of abilities, it has particular value for workers with mild to substantial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More Information

Jung-Won Jo
Planning Department
Eden House
345 Shinchon-ri Kyoha-eup
Paju-shi Ky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31-946-7031
Fax: 8231-946-7035
E-mail: eden0007@chol.com
Web site: www.edenwelfare.org

기타 언론보도 내역

언론명(매체형태)	보도 제목 또는 내용	보도일자	비고
국민일보(인터넷 등)	[역경의 열매] 정덕환 장애인 평생일터…등 14개 편	2016. 3. 23. ~ 4. 4.	14개편 특집
글로벌뉴스통신(인터넷)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세미나	2015. 10. 21.	
KBS1Tv 뉴스라인	방송기획대담 장애인 "일자리 복지"	2012. 10. 30.	생방송
OBS 뉴스	제5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개최	2013. 10. 30.	
WBC복지TV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2013. 11. 04.	
KBS 2TV(방송)	다큐멘터리 3일 "우리들의 꿈이야기"	2012. 7. 1.	
SBS(방송)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2008. 12. 24.	
복지TV	희망을 말한다	2006. 10. 11.	
KBS 2TV(방송)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살아있으면 다 행복합니다"	2009. 4. 28.	

※ 이외 다수 언론보도자료 존재(http://edenin.org/sub_group/community/community02.php)